

ISSN 2288-7083

# 경제전망보고서

2020. 8



한국은행  
BANK OF KOREA



# BANK OF KOREA

## 경제전망보고서

2020. 8





# 차례

## 〈요 약〉

I. 대내외 여건 점검 .....	1
1. 세계경제 .....	1
2. 국제유가 .....	9
3. 재정지출 .....	11
4. 부동산시장 .....	12
〈주요 전망 전체치〉 .....	14
II. 거시경제 전망 .....	15
1. 경제성장 .....	15
2. 고용 .....	28
3. 물가 .....	31
4. 경상수지 .....	35
III. 주요 현안점검 .....	36
1.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36
2. 최근 장마·집중호우의 경제적 영향 .....	42



## 요 약

- ①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 -1.3%, 2021년 2.8%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으나 그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
    -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전망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업황 악화로 인한 비IT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건물건설 부진으로 조정흐름이 지속될 전망
      - 상품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② 취업자수는 금년중 13만명 감소, 내년중 20만명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개선이 지연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부진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전망

③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중 0.4%, 2021년중 1.0%로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는 가운데 수요측 물가압력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공급차질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 내년중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④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40억달러 및 550억달러로 전망

경제 전망

(%)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 GDP <sup>1)</sup>	2.0	-0.8	-1.8	-1.3	2.3	3.2	2.8
민간소비	1.7	-4.4	-3.4	-3.9	4.0	3.6	3.8
설비투자	-7.5	4.2	0.9	2.6	4.5	7.8	6.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3.0	2.9	3.0	4.0	3.5
건설투자	-2.5	1.9	-3.1	-0.7	-2.6	1.7	-0.4
상품수출	0.5	-3.2	-5.6	-4.5	5.4	4.2	4.8
상품수입	-0.8	-1.1	-2.5	-1.8	6.3	5.6	5.9
▪ 취업자수 증감(만명) <sup>1)</sup>	30	-6	-21	-13	17	24	20
▪ 실업률	3.8	4.3	3.9	4.1	4.1	3.4	3.7
▪ 고용률	60.9	60.0	60.6	60.3	60.0	60.9	60.4
▪ 소비자물가 <sup>1)</sup>	0.4	0.6	0.3	0.4	0.7	1.3	1.0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4	0.4	0.6	1.1	0.8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6	0.7	0.7	0.8	1.2	1.0
▪ 경상수지(억달러)	600	192	348	540	220	330	550

주: 1) 전년동기대비

# I. 대내외 여건 점검

## 1. 세계경제

□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최근 회복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

○ 주요국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소비와 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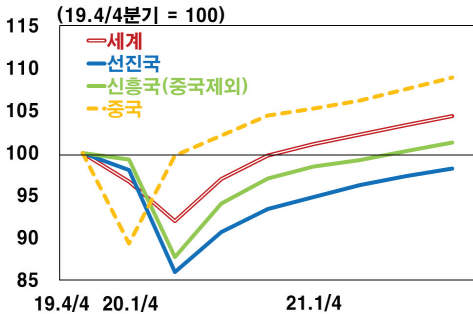
▶소매판매(%)					▶산업생산(%)				
	20.4월	5월	6월	7월		20.4월	5월	6월	7월
미 국	-14.7	18.3	8.4	1.2	미 국	-12.8	0.9	5.7	3.0
유 로	-12.1	20.3	5.7	·	유 로	-18.0	12.3	9.1	·
중 국	-7.5	-2.8	-1.8	-1.1	중 국	3.9	4.4	4.8	4.8

주: 1) 미국, 유로는 전월대비, 중국은 전년동월대비

○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과 다수 신흥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회복이 제약

▪ 전망경로에는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미·중 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세계 GDP 전망



자료: IMF WEO(20.6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IMF	20.6월	2.9	-4.9	5.4
(선진국)		1.7	-8.0	4.8
(신흥국)		3.7	-3.0	5.9
OECD <sup>1)</sup>	20.6월	2.7	-6.0	5.2
Global Insight	20.7월	2.9	-5.3	4.7
6개 IB 평균	20.8월	3.1	-3.8	5.8

주: 1) Single-hit(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기준

자료: 각 기관

□ 세계교역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상품교역은 투자부진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서비스교역도 각국의 출입국 통제와 교역 둔화로 부진이 지속

\* 글로벌 항공화물수요(전년동기대비, IATA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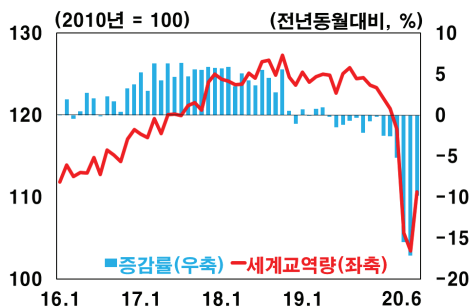
20.4월 -25.6% → 5월 -20.1% → 6월 -17.6%

제조업 수출주문 PMI: 20.4월 27.1 → 5월 32.3 → 6월 43.5 → 7월 46.9

-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교역은 상품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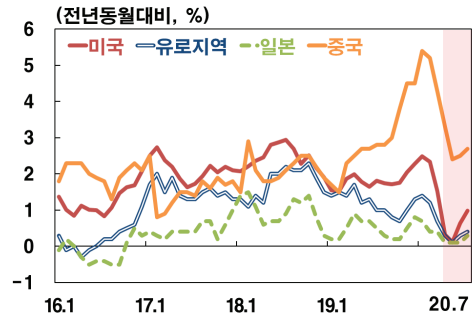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수요 위축이 점차 완화되면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전망

세계상품교역량<sup>1)</sup>



주: 1) 상품수입물량 기준  
자료: CPB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Eurostat,  
일본 총무성, 중국 국가통계국

## (미 국)

### □ 완만하나마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회복모멘텀은 다소 약화

- 개인소비지출과 산업생산이 20.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러나 7~8월중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는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8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도 하락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중 갈등 심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

미국 성장률 전망(%)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 IMF(20.8월)		-6.6	3.9
· OECD(20.6월)	2.2	-7.3/-8.5 <sup>1)</sup>	4.1/1.9 <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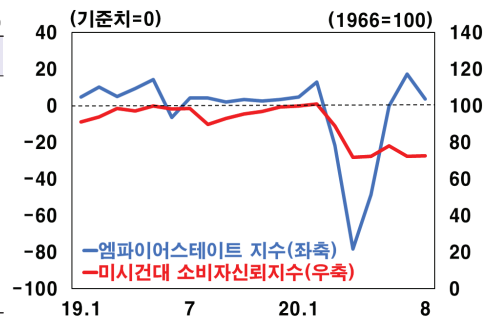
주: 1) Single-hit(재확산이 없을 경우)과 Double-hit(재확산이 있을 경우) 시나리오 기준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2.8	0.9	5.7	3.0
개인소비 서비스 지출	-12.4	5.6	5.0	·
소매 판매	-14.7	18.3	8.4	1.2
실업률(%)	14.7	13.3	11.1	10.2
ISM제조업지수 <sup>1)</sup>	41.5	43.1	52.6	54.2
ISM비제조업지수 <sup>1)</sup>	41.8	45.4	57.1	58.1

주: 1) 기준치=50  
자료: 연준, 상무부, 인구통계국, 노동부, ISM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뉴욕 연준, University of Michigan

## ( 유로지역 )

□ 경기부진이 완화되었으나 개선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

○ 생산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심리지표도 점차 개선

- 20.5월 이후 산업생산, 서비스생산, 소매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PMI도 7월에는 기준치를 회복

○ 경제회복기금 합의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개선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면서 속도는 더딜 전망

- 최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

\* 8.1~23일중 일평균(명): 스페인 4,241(6월대비 +3,913), 프랑스 2,236(+1,811), 독일 1,051(+625)

- 브렉시트 협상 지연, 재정지원프로그램 기한종료\*(fiscal cliff)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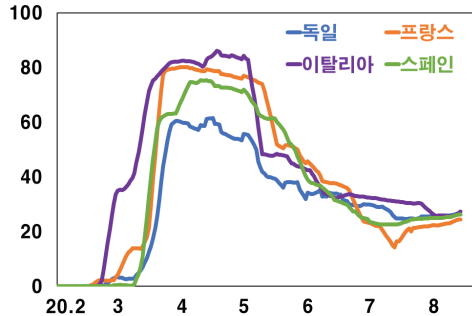
\* 주요국 고용유지지원금(스페인 9월말, 독일 12월말), 정부보증대출(스페인 9월말, 독·프·이 12월말) 등이 올해 종료 예정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sup>2)</sup>
산업생산	-18.0	12.3	9.1	..
서비스생산	-16.2	8.0	..	..
소매 판매	-12.1	20.3	5.7	..
실업률(%)	7.5	7.7	7.8	..
제조업PMI <sup>1)</sup>	33.4	39.4	47.4	51.8 [51.7]
서비스PMI <sup>1)</sup>	12.0	30.5	48.3	54.7 [50.1]

주: 1) 기준치=50 2) [ ]는 20.8월중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이동제한조치 강도<sup>1)2)</sup>



주: 1) Effective Lockdown Index(ELI) 기준  
2) 지수 7일 이동평균

자료: Goldman Sachs



## (일본)

□ 감염병 재확산으로 미약한 개선흐름이 이어질 전망

○ 소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생산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선세가 미약

▪ 주력산업인 자동차(20.7월 전년동월대비 -30.0%)와 일반기계(-17.7%)의 수출 부진이 지속

○ 기업 및 가계의 심리 위축 등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서비스업PMI 및 소비자태도지수의 개선흐름이 주춤

\* 도쿄·오사카 등에서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일부 지자체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등 이동제한조치를 강화

▪ 전국적 긴급사태 선포 및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 일본 성장률 전망(%)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 IMF(20.6월)		-5.8	2.4
· OECD(20.6월)	0.7	-6.0/-7.3 <sup>1)</sup>	2.1/-0.5 <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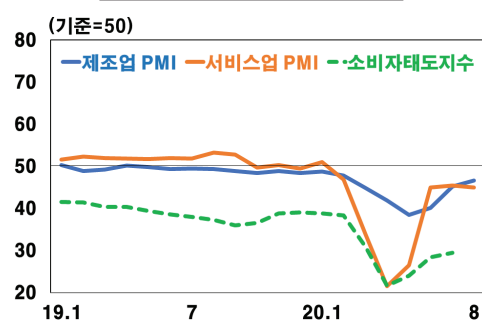
주: 1) Single-hit과 Double-hit 시나리오 기준

일본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9.8	-8.9	1.9	..
소매 판매	-9.9	1.9	13.1	..
수출(통관)	-11.5	-5.5	1.3	4.7
민간기계수주액 <sup>1)</sup>	-12.0	1.7	-7.6	..
제조업 PMI <sup>2)</sup>	41.9	38.4	40.1	45.2[46.6]
서비스업 PMI <sup>2)</sup>	21.5	26.5	45.0	45.4[45.0]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3) [ ] 내는 20.8월중  
자료: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PMI 및 소비자태도지수



자료: IHS Markit, 내각부

## (중 국)

- 상대적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선흐름을 지속
    - 20.7월 들어 수출 증가폭이 확대(20.6월 전년동월대비 0.5% → 7월 7.2%) 되고 소매판매 감소폭은 축소(-1.8% → -1.1%)
  - 향후에도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중국 정부는 대외수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앙정치국회의, 7.30일)
    - 다만 미·중 갈등 심화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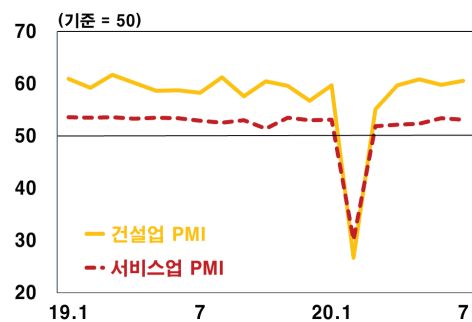
▶ 중국 성장률 전망(%)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 IMF(20.6월)		1.0	8.2
· OECD(20.6월)	6.1	-2.6/-3.7 <sup>1)</sup>	6.8/4.5 <sup>1)</sup>
주: 1) Single-hit과 Double-hit 시나리오 기준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3.9	4.4	4.8	4.8
소매판매	-7.5	-2.8	-1.8	-1.1
고정투자 <sup>1)</sup>	-10.3	-6.3	-3.1	-1.6
수출	3.4	-3.2	0.5	7.2
제조업PMI <sup>2)</sup>	50.8	50.6	50.9	51.1
비제조업PMI <sup>2)3)</sup>	53.2	53.6	54.4	54.2

주: 1) 누계 기준 2) 기준치=50  
 3) 비제조업 상업활동지수 기준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 ( 신흥국 )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개선흐름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

- 아세안5국은 내수회복 지연(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출부진 지속\* (태국) 등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더딜 전망

\* 태국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5월 -22.5% → 6월 -23.2%

- 다만 20.6월 들어 대중수출을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제조업 PMI도 개선

- 인도는 신규 확진자수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이동제한조치 완화(20.6.1일) 이후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생산 및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종합PMI도 낮은 수준을 지속

\* 20.6월 12,823명 → 7월 34,582명 → 8.1~20일 59,903명(일평균)

### 아세안<sup>5)</sup>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sup>2)</sup>	-25.1	-19.7	-9.1	..	산업생산	-57.6	-33.9	-16.6	..
소매 판매	-23.0	-18.6	..	..	자동차판매	-	-84.8	-43.0	-18.6
수출	-14.9	-22.8	-4.4	..	수출	-60.3	-36.5	-12.4	-10.2
(대중수출)	5.5	3.0	24.3	..	제조업PMI <sup>1)</sup>	27.4	30.8	47.2	46.0
제조업PMI <sup>3)</sup>	32.0	39.7	46.9	47.8	종합PMI <sup>1)</sup>	7.2	14.8	37.8	37.2

주: 1)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2) 인도네시아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Bloomberg, CEIC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 국제유가의 더딘 회복, 감염병 확산  
지속으로 개선흐름이 완만할 전망

- 브라질은 20.6월 들어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차  
둔화\*\*될 가능성

\* 20.6월 29,299명 → 7월 38,972명 → 8.1~20일 42,754명(일평균)

\*\* 7월 서비스업 PMI는 제조업(58.2)에 비해 크게 낮은 42.5에 그침

- 러시아는 저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소비  
지표가 부진을 지속

\* 러시아는 균형재정 유지를 위하여 정부예산을 2021~23년중 약 10%(총  
650억달러 규모) 감축할 계획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27.5	-21.8	-9.0	..
소매판매	-17.1	-6.4	0.6	..
수출	-8.5	-14.5	-4.3	-2.9
제조업PMI <sup>1)</sup>	36.0	38.3	51.6	58.2
서비스업PMI <sup>1)</sup>	27.4	27.6	35.9	42.5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0.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6.6	-9.6	-9.4	-8.0
소매판매	-23.2	-19.2	-7.7	-2.6
수출	-34.5	-35.5	-25.3	..
제조업PMI <sup>1)</sup>	31.3	36.2	49.4	48.4
종합PMI <sup>1)</sup>	13.9	35.0	48.9	56.8

주: 1) 기준치=50  
자료: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2. 국제유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4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반등한 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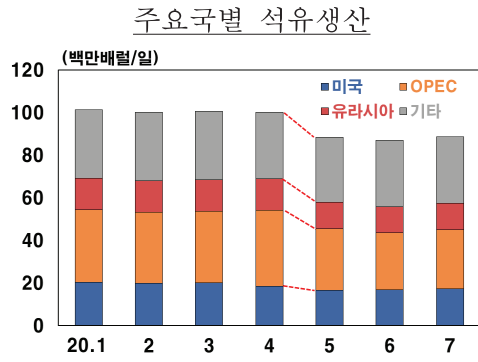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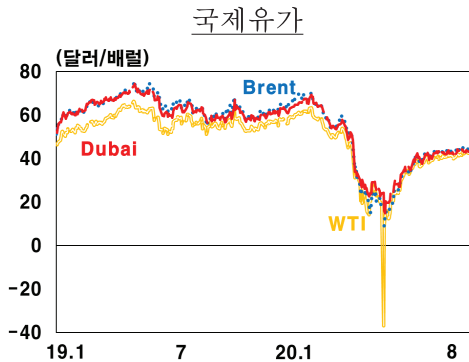
○ 20.5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석유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이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

(기간평균 백만배럴/일)	20.1/4	4월	5월	6월	7월
▶ 세계 석유수요(EIA)	94.8	80.5	84.1	90.4	93.4

▪ OPEC+가 당초 우려와 달리 기존 합의대로 감산을 이행\*한 데다 미 셰일업체의 시추 활동도 감소\*\*

\* 20.6월 및 7월 감산 이행률은 각각 합의 수준의 107%, 97%에 달해 매우 높은 이행 수준을 유지(OPEC)

\*\* 8.7일 기준 미 원유 시추기수는 176기로 코로나19 확산 이전(678기, 20.2월말)대비 크게 감소(Baker Hug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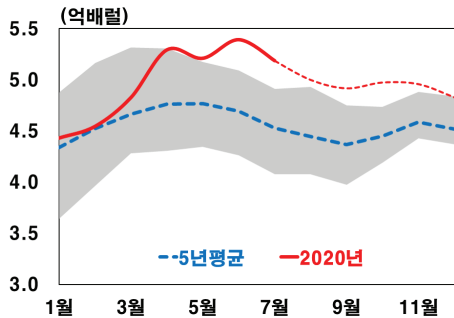
□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석유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OPEC+ 감산 등으로 공급 과잉도 완화

○ 다만 원유재고가 적지 않게 누적되어 있는 데다 가격이 오를 수록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재차 늘릴 유인\*이 커지는 점은 유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9년에도 일부 OPEC국가(이라크, 나이지리아) 및 러시아가 자국 경제 상황 등으로 감산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바 있으며, 에콰도르는 재정적 이유로 금년 1월 OPEC을 탈퇴한 바 있음

미 원유재고<sup>1)2)</sup>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sup>1)</sup>

	2020		2021	
	3/4	4/4	연간	연간
EIA (8.11일)	43.1	43.5	41.6	49.5
IHS (8.17일)	44.4	43.3	42.0	49.0
OEF (8.11일)	44.2	49.4	43.4	49.1

주: 1) 음영은 15~19년중 원유재고의 최대, 최소  
 2) 20.8월 이후는 전망치  
 주: 1) 브렌트유 기준, ( )내는 전망일자  
 자료: 미 에너지정보청(EIA)

### 3. 재정지출

□ 금년중 재정지출은 16.8% 늘어 지난해(12.0%)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여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린 데 주로 기인

재정지출 전망<sup>1)</sup>

	2019	2020			2021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 통합재정지출 (증가율 <sup>2)</sup> )	455.9 (12.0)	300.7 (11.2)	231.6 (25.0)	532.3 (16.8)	317.4 (5.5)	230.6 (-0.4)	548.0 (3.0)
- 경상지출	387.1	261.1	194.1	455.2	272.5	198.0	470.5
- 자본지출	49.6	21.3	24.1	45.5	27.2	19.8	47.0
- 순 용 자	19.2	18.3	13.3	31.6	17.7	12.8	30.5

주: 1) 통합재정 기준 2)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조사국 추정

○ 2021년 재정지출은 정부의 예산 요구 현황 등을 감안하여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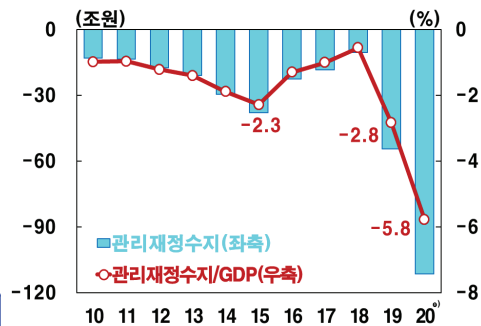
□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

주요 분야별 총지출

구 분	2019 <sup>1)</sup>	2020 <sup>2)</sup>	증감(률)
· 보건복지고용	162.6	194.4	31.8 (19.6)
· 일반·지방행정	76.7	93.6	16.9 (22.0)
·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20.5	31.6	11.1 (54.1)
· R&D	20.9	24.3	3.4 (16.3)
· SOC	20.4	22.9	2.5 (12.3)
<b>총지출</b>	<b>475.4</b>	<b>546.9</b>	<b>71.5 (15.0)</b>

주: 1) 추경예산 기준  
2) 3차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



자료: 기획재정부

## 4.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

(전월대비, %)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전국	0.3	0.3	0.5	0.3	0.1	0.4	0.6
- 수도권	0.4	0.5	0.9	0.5	0.3	0.5	0.8
- 비수도권	0.2	0.2	0.2	0.1	0.0	0.3	0.4

자료: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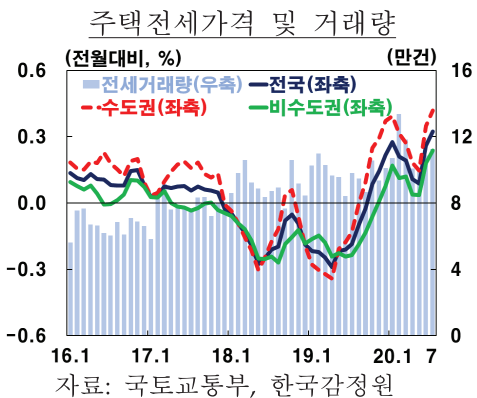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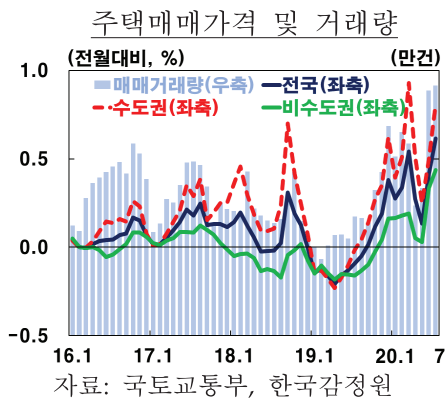
- 이에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

\* 6.17일·7.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8.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전주대비, %, 자료: 한국감정원)

6월 4주 0.22 → 7월 1주 0.15 → 3주 0.12 → 8월 1주 0.13 → 3주 0.11

-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31일) 등으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이 확대





□ 금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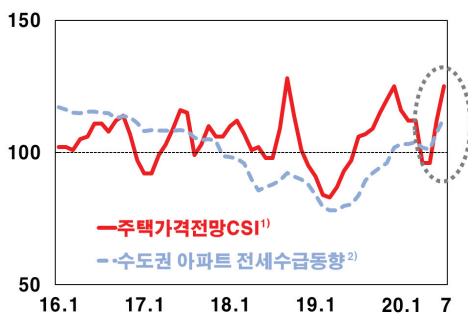
○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금년 발표된 정부정책의 영향\*이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

\*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사전청약이 확대(내년 하반기중 3만호)될 계획

□ 당분간 전세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나 전월세상한제가 정착되면서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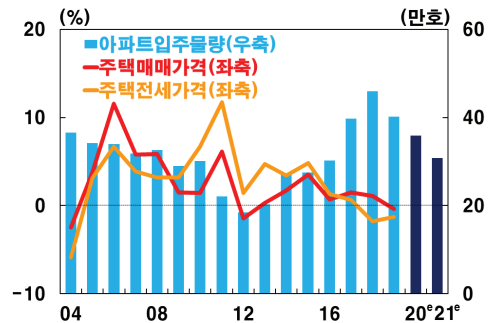
\* 청약대기 등 수요는 높으나 입주물량 감소, 임대인의 월세선호 등으로 공급이 축소

주택가격전망CSI 및 전세수급동향



주: 1) 100초과시 상승 > 하락  
 2) 100초과시 수요 > 공급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주택가격 및 입주물량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 <주요 전망 전제치>

(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

-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겠으나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
  -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동제한조치는 점차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국내)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연초 확산과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 2020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4.1%로 전제
  - 2021년은 4.7% 성장
- 세계교역 신장률은 -12.5%로 전제
  - 2021년은 6.6% 증가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43달러로 전제
  - 2021년은 49달러 수준

### 전망 전제치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2.9	-4.3	-4.0	-4.1	4.7
미 국	2.2	-4.6	-7.9	-6.3	3.2
유 로	1.3	-9.0	-9.3	-9.1	3.5
일 본	0.7	-5.8	-6.2	-6.0	2.1
중 국	6.1	-1.6	5.0	1.9	8.2
▪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0.9	-14.3	-10.8	-12.5	6.6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sup>2)</sup>	65	42	45	43	49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기간 평균, CIF 기준, 원유도입비중(2019년 기준): 중동산 70%, 여타 30%

## Ⅱ. 거시경제 전망

### 1. 경제성장

#### (1) 민간소비

□ 2/4분기중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

○ 최근 들어 전월중 내구재 소비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 장마 영향\* 등으로 개선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

\* <Ⅲ. 주요 현안점검> '2.최근 장마·집중호우의 경제적 영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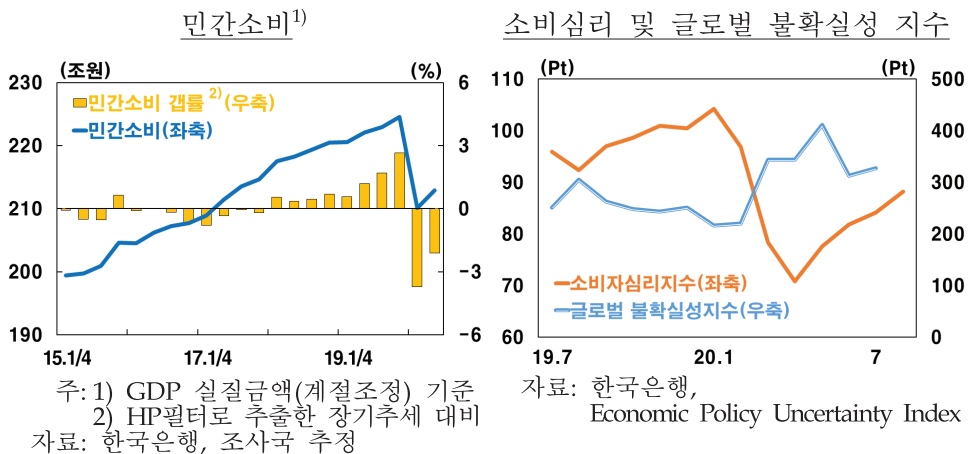
(단위: 만대)	2019년 월평균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승용차 내수판매	12.8	9.8	8.2	14.8	14.7	14.9	18.1	13.9

자료: 각 제조사(국산),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향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

○ 가계소득은 고용상황 및 자영업자 업황 개선 지연 등으로 부진이 예상

▪ 2/4분기중 이전소득 증가로 전체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늘었으나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 소비심리는 경제활동 제약 완화 이후 다소 반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져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부문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서비스 회피, 해외여행 위축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상당기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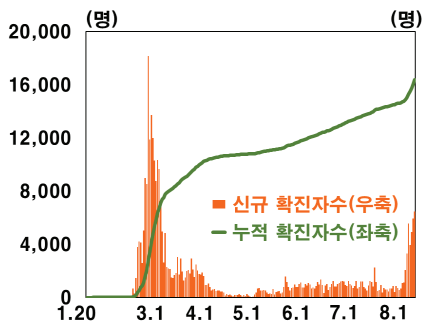
○ 거주자 국외소비는 국가간 이동제한 장기화\*, 여행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큰 폭 감소세를 지속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운송 업황이 2023년까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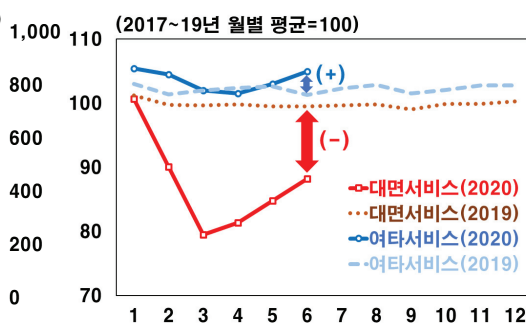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19.1/4	2/4	3/4	4/4	20.1/4	2/4
▶ 내국인출국자수	5.8	3.7	-1.7	-7.7	-52.9	-98.4

자료: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대면서비스<sup>1)</sup> 회복 추이<sup>2)</sup>



주: 1)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운수·창고 기준  
2) 서비스생산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 다만 정부 지원정책, 코로나19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저축 증가 등은 향후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소득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정책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

\* 고용·소득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 등  
소비활성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 연장(20.3~6월 70% → 7~12월 30%),  
가전기기 구매환급 확대 등

○ 또한 대면서비스 및 해외여행 감소 등에 따른 저축 증가는 향후 심리 개선시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

⇒ 금년중 민간소비는 3.9% 감소할 전망

○ 2021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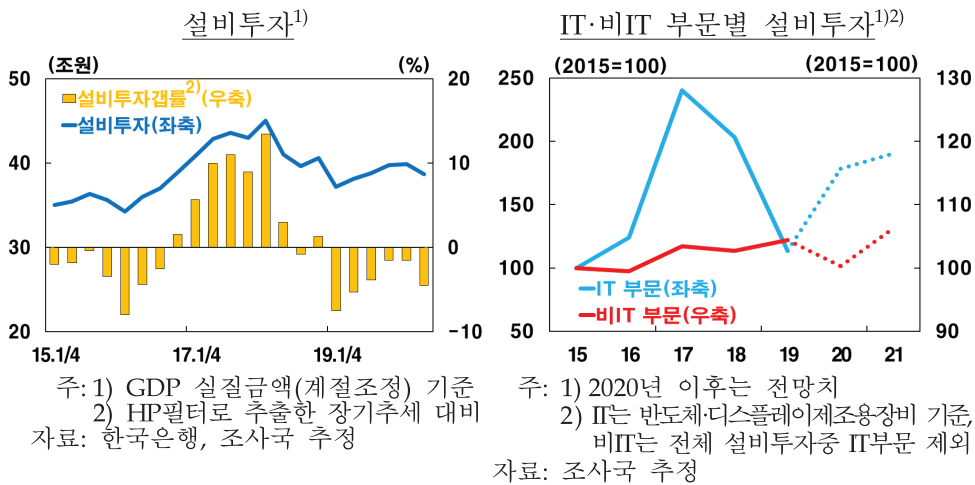
#### 민간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1.7	-4.4	-3.4	-3.9	4.0	3.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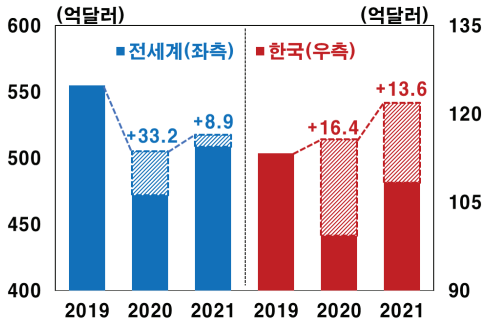
## (2) 설비투자

- 2/4분기중 설비투자는 IT부문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가 크게 줄면서 회복이 제약
-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에는 비IT부문도 회복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



- IT부문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나 반도체 중심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반도체는 기술격차 유지 및 신성장 부문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전망
    -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은 한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투자 전망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해 상향 조정
  - 디스플레이는 국내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전방산업 수요 부진 등으로 OLED 투자가 지연될 전망
    - 다만 중국이 LCD에 이어 OLED에서도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하반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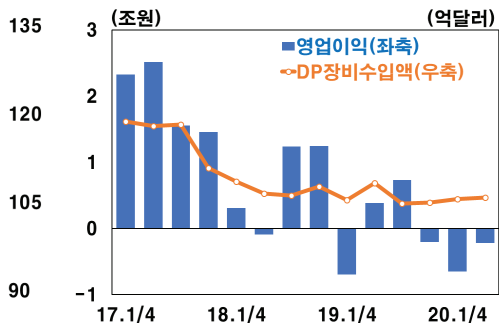
반도체제조용장비 매출 전망<sup>1)</sup>



주: 1) 빗금 부분은 4월 전망대비 7월 전망시 증가분

자료: Gartner

국내 디스플레이업체 영업이익과 장비수입액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관세청

□ 비IT부문은 금년중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하겠으나 내년에는 그간 지연되었던 노후설비 교체와 일부업종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면서 회복될 전망

○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둔화\*로 보수적인 투자를 지속하겠으나 미래형 자동차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전망(백만대, KPMG, 20.4월):

2019년 90.3(-4.4%) → 2020년<sup>e)</sup> 76.6(-15.2%) → 2021년<sup>e)</sup> 85.9(12.2%)

○ 석유화학 및 철강\*은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 부진의 영향으로 당분간 신규투자가 제약될 전망

\* 세계 철강 수요 전망(백만톤, 세계철강협회, 20.6월):

2019년 1,767(3.4%) → 2020년<sup>e)</sup> 1,654(-6.4%) → 2021년<sup>e)</sup> 1,717(3.8%)

○ 조선은 최근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량 위축으로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관련 투자가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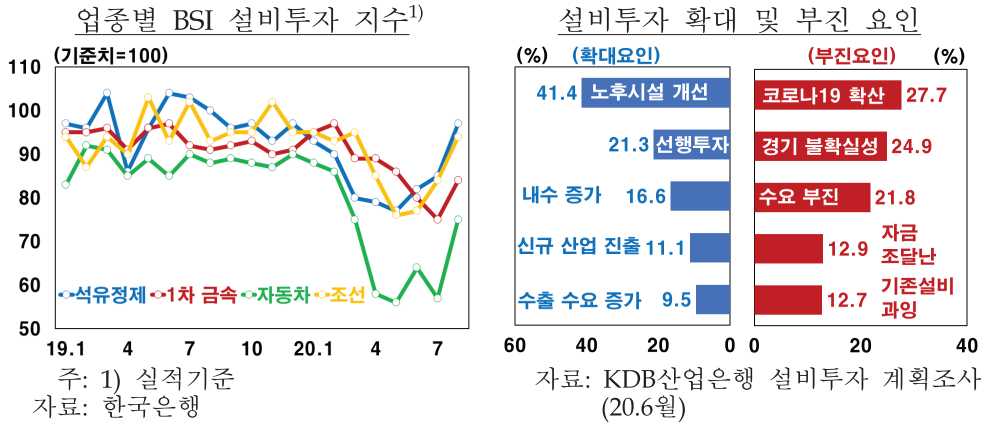
\* 국내 조선업 가동률 지수(2015=100) 및 신규수주량(전년동기대비, %)

	19.1/4	2/4	3/4	4/4	20.1/4	2/4
▶ 가동률	88.3	93.9	102.5	108.3	110.4	110.8
▶ 신규 수주량	-46.7	-34.7	-42.6	27.9	-78.5	-57.4

자료: 통계청, Clarkson

- 한편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

\*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7.23일):  
 신규 민자사업 발굴(30조원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 잠재력 확충



⇒ 금년중 설비투자는 IT부문 중심으로 2.6% 증가할 전망

- 2021년에는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전망

연간	2019		2020		2021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7.5	4.2	0.9	2.6	4.5	6.2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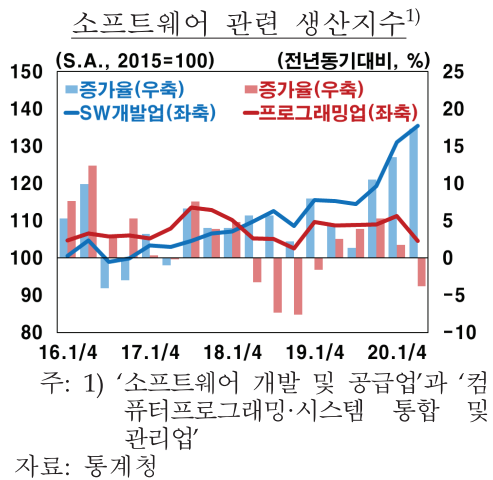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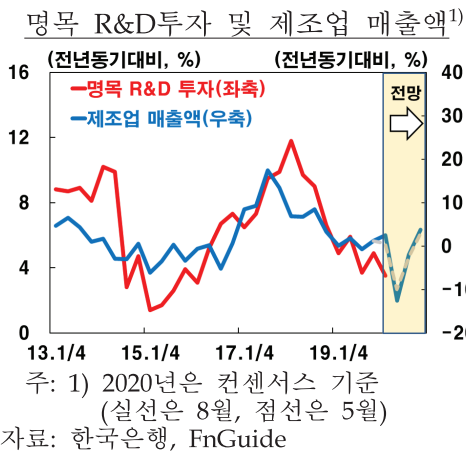
###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R&D투자는 금년중 기업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의 세제지원\*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일반 R&D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등(2020년 세법개정안, 7.22일)

-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쇼핑 및 교육 등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생산이 확대



⇒ 금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9% 증가할 전망

- 2021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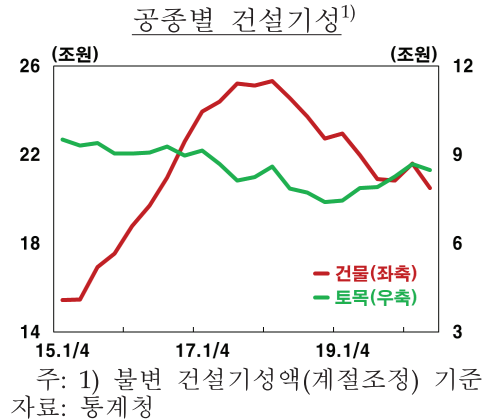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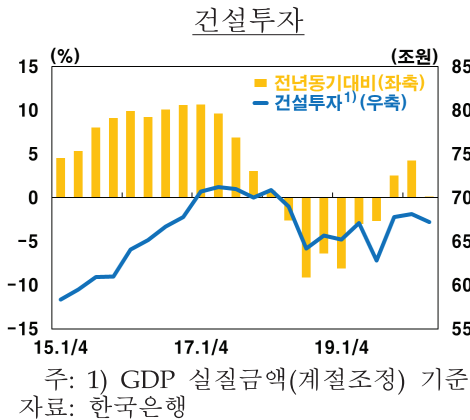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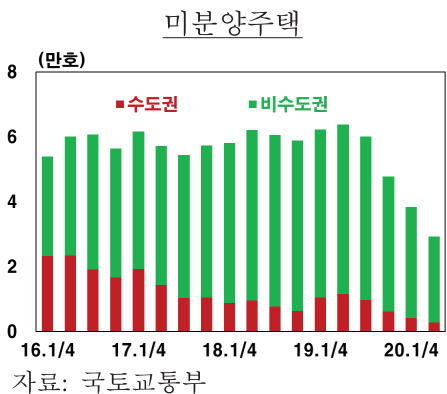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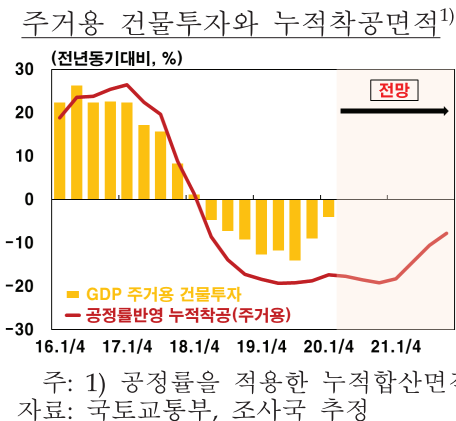
연간	2019		2020		2021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3.0	2.8	3.0	2.9	3.0	3.5

## (4)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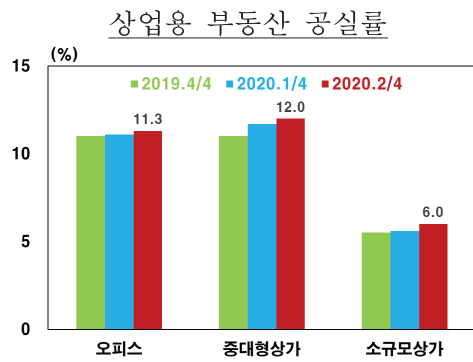
- 2/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감소
- 하반기중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 지속,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
  - 내년에는 주거용 건물의 부진이 완화되며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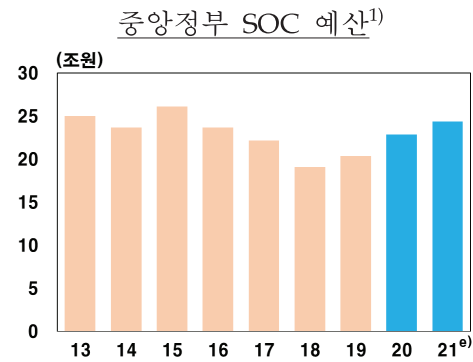
- 주거용 건물은 금년중 조정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내년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최근 들어 주택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당분간은 2018년 이후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이 이어질 전망
  - 미분양주택 감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은 향후 주거용 건물 회복에 도움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 및 공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
  - 상업용 건물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 업황 악화 등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진이 예상
  - 공업용 건물은 착공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둔화될 전망
- 토목은 하반기중 증가폭이 축소되겠으나 내년까지 전반적인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 내년중 정부의 SOC 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



자료: 한국감정원



주: 1) 2021년은 예산요구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건설투자는 금년중 0.7% 줄어들 전망

- 2021년에는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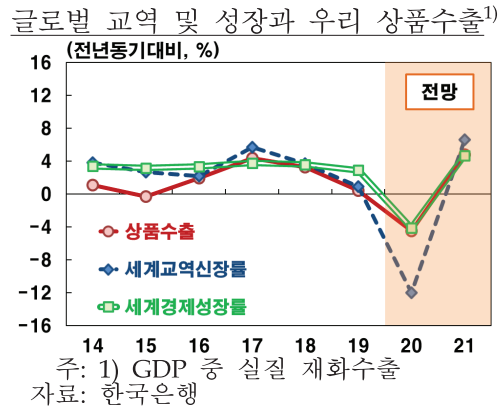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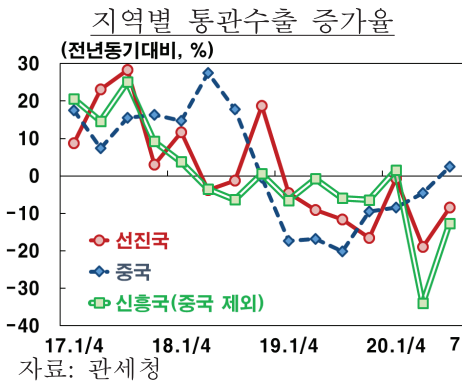
건설투자 전망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2.5	1.9	-3.1	-0.7	-2.6	1.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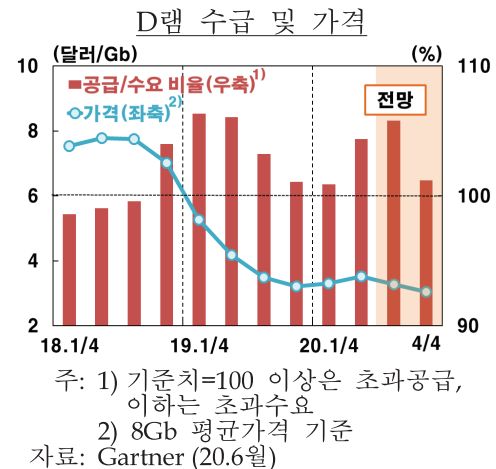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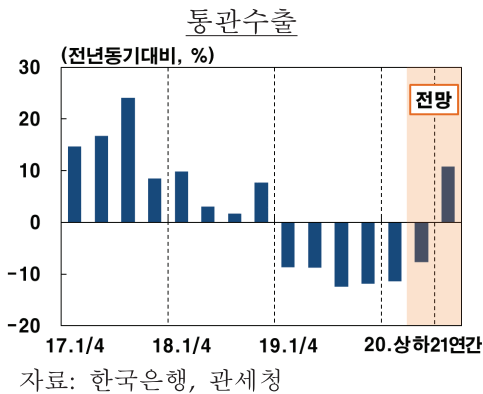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5) 상품수출

- 2/4분기중 상품수출(GDP 실질 재화수출)은 전기대비 16.5% 감소
- 향후 상품수출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금액기준(통관수출)으로도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
  - (IT) 반도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패널·휴대폰도 부진할 전망
    - 금년초 회복조짐을 보였던 반도체 경기는 최근 들어 수요둔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공급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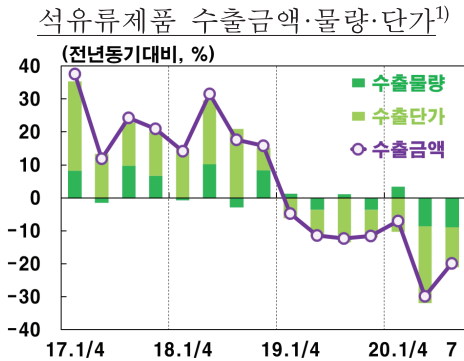
- (비IT) 선박은 2018년 이후 수주된 고가 선박의 인도가 진행되면서 증가하겠으나,

석유류(화공품·석유제품)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자동차도 수요 둔화로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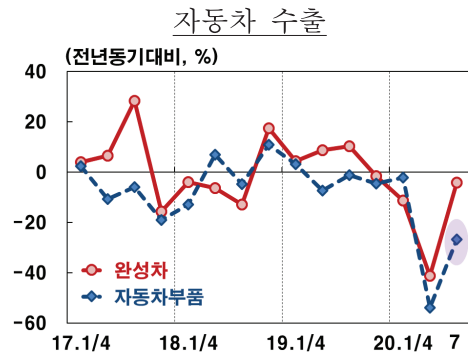
-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 인도 등 우리 기업의 해외공장 생산차질로 완성차보다 부품수출이 더 크게 감소

- (무통관수출) 해외공장 생산차질,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디스플레이패널·휴대폰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

- 상반기중에는 인도·브라질 등 해외공장에서 경제봉쇄조치로 인한 생산차질이 발생한 데다, 베트남·중국에서도 글로벌 수요둔화로 수출이 부진



주: 1) 석유류제품 수출금액을 수출 중량(톤)으로 나누어 산출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자료: 관세청

⇒ 금년중 상품수출은 4.5% 감소할 전망

- 2021년에는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품수출<sup>1)</sup>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0.5	-3.2	-5.6	-4.5	5.4	4.2	4.8

주: 1) GDP 중 실질 재화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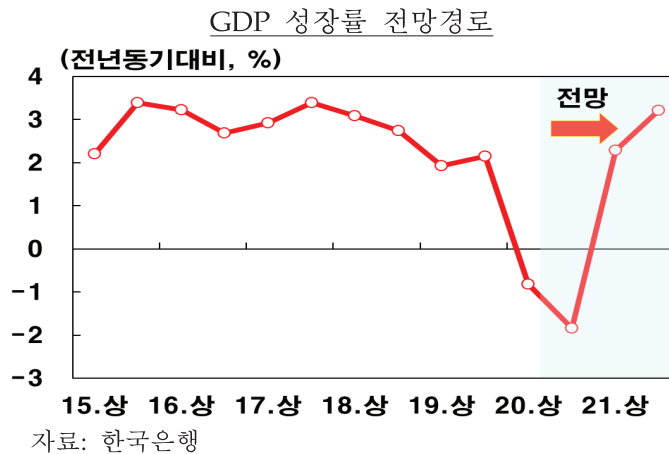
## (6) GDP 성장률

□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1.3%, 내년중 2.8% 수준을 나타낼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 경제성장률(전년대비, %)	2.9	3.2	2.9	2.0	-1.3	2.8

○ 국내경기는 점차 개선되겠으나 그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

—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전망



###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연간	2020		2020 <sup>e)</sup> 연간 <sup>e)</sup>	2021 <sup>e)</sup>		
		상반	하반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GDP	2.0	-0.8	-1.8	-1.3	2.3	3.2	2.8
민간소비	1.7	-4.4	-3.4	-3.9	4.0	3.6	3.8
설비투자	-7.5	4.2	0.9	2.6	4.5	7.8	6.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8	3.0	2.9	3.0	4.0	3.5
건설투자	-2.5	1.9	-3.1	-0.7	-2.6	1.7	-0.4
상품수출	0.5	-3.2	-5.6	-4.5	5.4	4.2	4.8
상품수입	-0.8	-1.1	-2.5	-1.8	6.3	5.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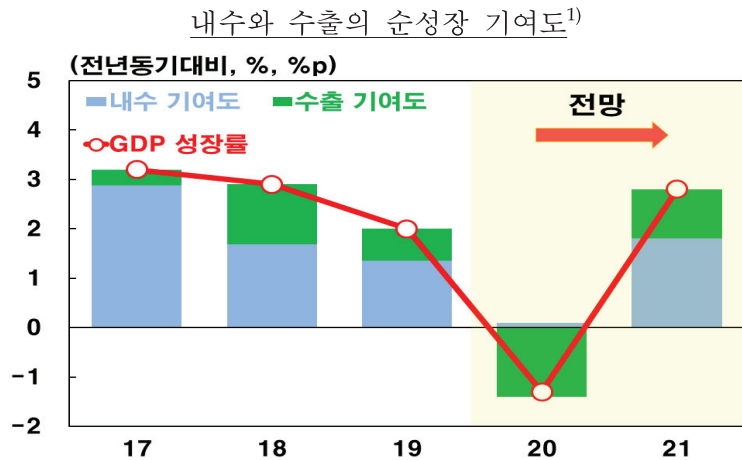
□ 금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내수 기여도는 크게 축소될 전망

(%,%p)	2017	2018	2019	2020 <sup>e)</sup>	2021 <sup>e)</sup>
▶ GDP	3.2	2.9	2.0	-1.3	2.8
내수	2.9	1.7	1.4	0.1	1.8
수출	0.3	1.2	0.6	-1.4	1.0

□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 <Ⅲ. 주요 현안점검> '1.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참조

- (상방리스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기 개발 및 공급, 중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 (하방리스크) 코로나19의 국내외 감염 재확산, 반도체경기 둔화, 미·중 갈등 심화



주: 1) I/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산  
 자료: 한국은행

## 2. 고 용

### (1) 동 향

□ 3월 이후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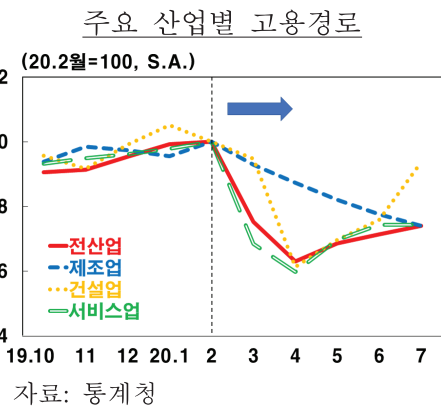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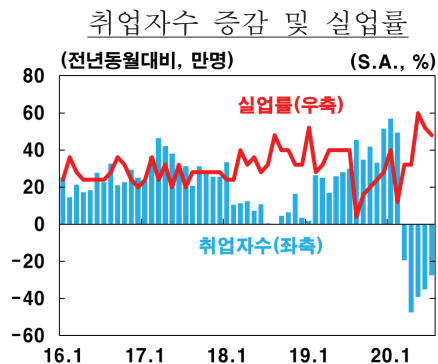
\*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 등

○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 지속

○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

(전년동월대비, 만명)	20.3월	4월	5월	6월	7월
취업자수 증감(전체)	-19.5	-47.6	-39.2	-35.2	-27.7
산업별					
▶ 제조업	-2.3	-4.4	-5.7	-6.5	-5.3
▶ 건설업	-2.0	-5.9	-6.1	-6.2	-2.3
▶ 서비스업	-29.4	-44.4	-33.3	-28.0	-24.0
종사상지위별					
▶ 상용직	45.9	40.0	39.3	34.9	34.6
▶ 임시일용직	-59.3	-78.3	-65.3	-49.4	-43.9
▶ 비임금근로자	-6.2	-9.4	-13.2	-20.8	-18.5

□ 7월중 실업률(S.A.)은 4.2%로 전월(4.3%)대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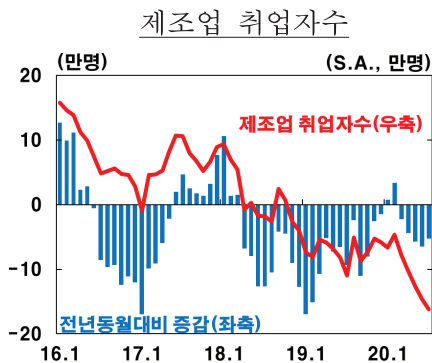
## (2) 전 망

□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개선 지연, 제조업 및 건설업 업황부진 등으로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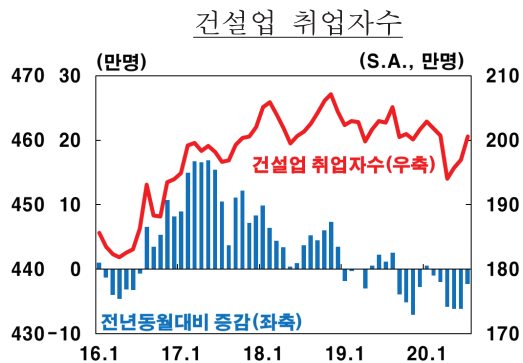
○ 제조업 고용은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제조업의 업황개선이 제약되면서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고용은 공사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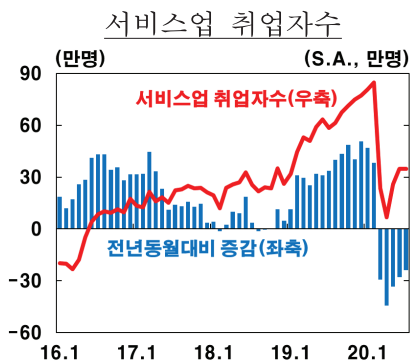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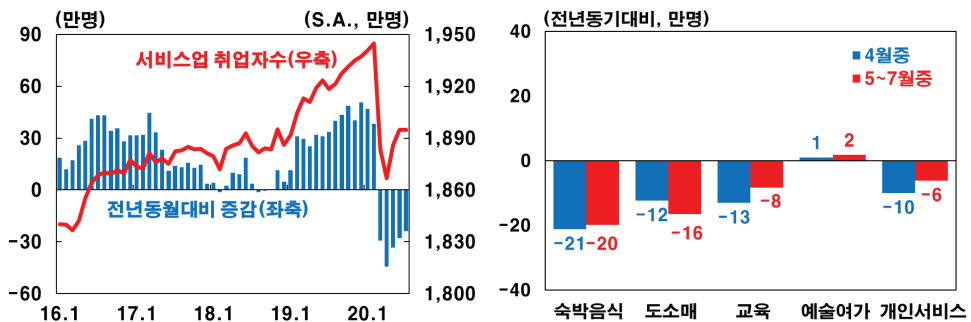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 고용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일부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 완화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



자료: 통계청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 한편 코로나19 충격으로 급증한 일시휴직자수는 향후 고용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수준, 만명)	2018~19년 평균	20.3월	4월	5월	6월	7월
일시휴직자(취업)	40.5	160.7	148.5	102.0	72.9	68.5

자료: 통계청

\* 신규채용보다 일시휴직자 복직 우선(경기회복시), 일시휴직자의 실업자 전환 증가(경기부진 장기화시) 등

⇒ 금년중 취업자수는 작년에 비해 13만명 감소할 전망

-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4.1%\* 및 60.3%로 예상

\* 일시휴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2021년에는 20만명 증가할 전망

#### 고용 전망

	(만명, %)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0	-6	-21	-13	17	24	20
실업률	3.8	4.3	3.9	4.1	4.1	3.4	3.7
(S.A.)	-	4.0	4.2	-	3.8	3.7	-
고용률 <sup>2)</sup>	60.9	60.0	60.6	60.3	60.0	60.9	60.4
	[66.8]	[65.9]	[66.4]	[66.1]	[66.0]	[66.6]	[66.3]

주: 1)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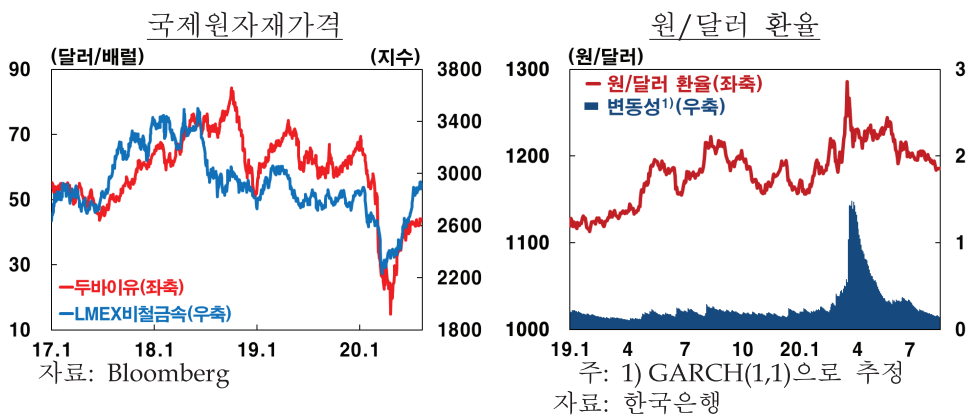
2) 15세 이상, [ ] 내는 15~64세(OECD기준)

### 3. 물 가

#### (1) 여 건

##### ( 해외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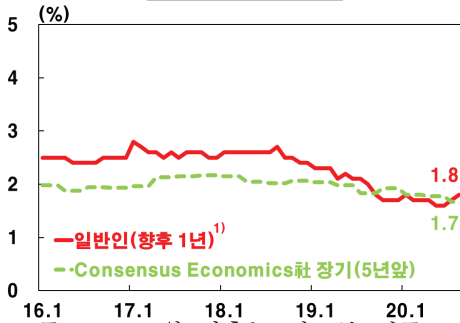
- (국제원자재가격)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및 비철금속가격이 반등
  - 향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환율) 원/달러 환율은 6월 이후 위험회피심리 완화 등으로 하락



##### ( 국내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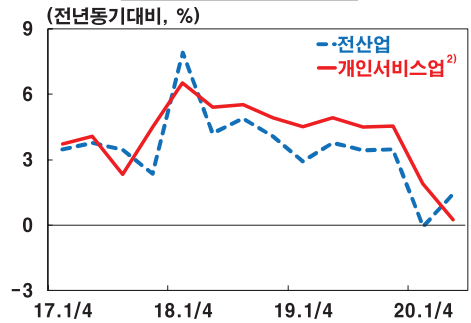
- (국내수요) GDP갭률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기대물가)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 및 전문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5년앞)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 (노동비용)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하회할 전망

기대인플레이션



주: 1) 18.9월 이후는 신표본 기준  
 자료: 한국은행, Consensus Economics

근로자 1인당 임금<sup>1)</sup>



주: 1) 20.2/4분기는 4~5월 기준  
 2) 음식점·주점업, 숙박업,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 수리업, 스포츠·여가  
 자료: 고용노동부

(기타요인)

□ (농축수산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채소 및 과실류 공급차질\*은 당분간 농산물가격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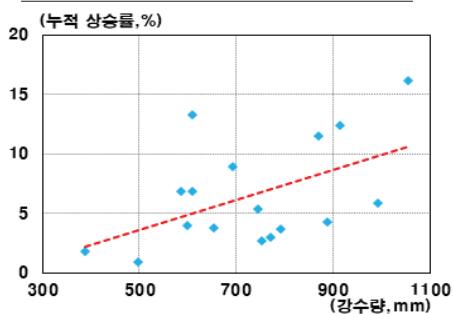
\* 금년 봄 이상저온에 따른 일부 과실의 생육 부진도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자세한 내용은 <Ⅲ. 주요 현안점검> '2. 최근 장마·집중호우의 경제적 영향' 참조

○ 축산물가격은 5월 이후 일시적 수요 증가\*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면서 오름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까지 85% 정도(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지급 기준) 사용되면서 축산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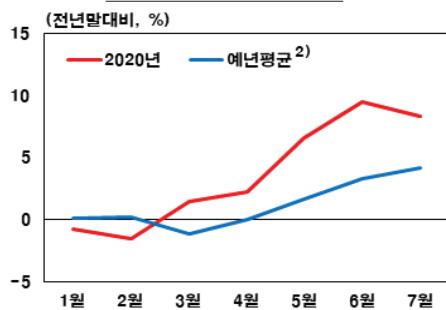
여름철 강수량<sup>1)</sup> 및 농산물가격<sup>2)3)</sup>



주: 1) 6~8월 누적 강수량  
 2) 7~8월중 누적 상승률  
 3) 2000~19년중 폭염의 영향이 컸던 2013, 2016, 2018년은 제외

자료: 기상청, 통계청

축산물가격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말대비  
 2) 2015~19년 평균

자료: 통계청

□ (정부정책) 교육·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일부 공공요금 인하\*\* 등이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6월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

\*\* 도시가스요금 인하(전국), 상하수도료 일시 감면(천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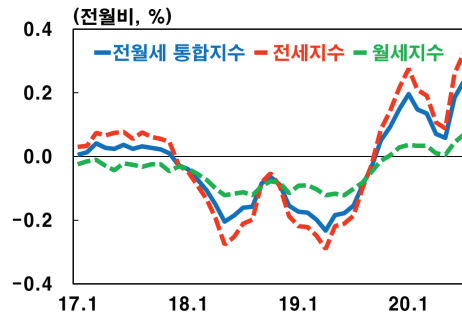
□ (집세) 최근 전·월세(신규계약 기준) 상승은 당분간 집세(CPI 기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20년 주요 공공요금 조정

분류	내용
인상	수도 - 상하수도료 인상(구미 등, 10월)
	교육 - 고교납입금 무상화 확대(서울·부산 등, 9월) - 무상급식 확대(부산, 9월)
인하	의료 - 눈 초음파 급여화(9월) - 흉부 초음파 급여화(하반기중)
	교통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전국, 연말)
	수도 - 상하수도료 감면(천안, 6~8월)
에너지	- 도시가스요금 인하(전국, 7월)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및 자체 서베이

전·월세 상승률



자료: 한국감정원

## (2) 전 망

- 금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0.4%로 전망
  - 최근 국제유가 상승,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공급차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국제유가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는 데다 수요측 물가압력도 낮은 수준을 지속
    - 교육·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도 지속
- 내년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0%, 0.8%로 전망
  -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0.4	0.6	0.3	0.4	0.7	1.3	1.0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4	0.4	0.6	1.1	0.8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6	0.7	0.7	0.8	1.2	1.0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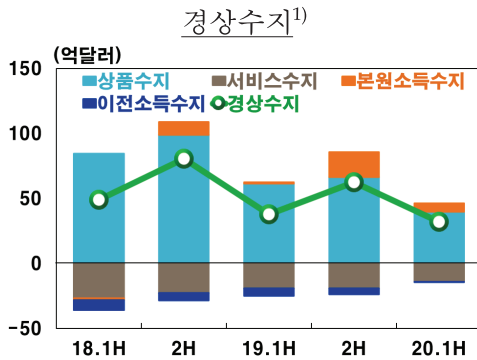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확대</li> <li>▪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심화</li> <li>▪ 글로벌 원유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li> </ul>

## 4.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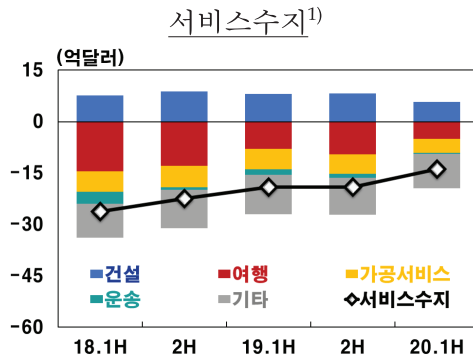
□ 금년중 경상수지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상품수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비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흑자폭이 축소
- (서비스수지) 내국인 해외여행\* 및 교역량 위축 등으로 여행·운송 서비스 등의 수지가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축소

\* 20.3~6월중 입·출국자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입국자 -97.1%, 출국자 -97.2%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4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1년에는 550억달러로 예상

### 경상수지 전망<sup>1)</sup>

	2019		2020		2021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600	192	348	540	220	330	550
상품수지	769	240	400	640	325	405	730
수출(통관)	5,422	2,406	2,503	4,910	2,630	2,810	5,440
	(-10.4)	(-11.3)	(-7.7)	(-9.5)	(9.3)	(12.3)	(10.8)
수입(통관)	5,033	2,296	2,294	4,590	2,470	2,600	5,070
	(-6.0)	(-9.1)	(-8.5)	(-8.8)	(7.6)	(13.4)	(10.5)
서비스·본원·이전소득	-169	-48	-52	-100	-105	-75	-180
서비스수지	-230	-84	-86	-170	-95	-105	-200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Ⅲ. 주요 현안점검

#### 1.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1) 검토 배경

- 이동제한조치의 완화로 글로벌 경제활동은 재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수시로 부각
  -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시기 및 팬데믹 기간 중 이동제한 완화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적 이동제한조치는 확산초기와 달리 급격히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 최근 코로나19 전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세계 및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를 점검



## (2) 코로나19 전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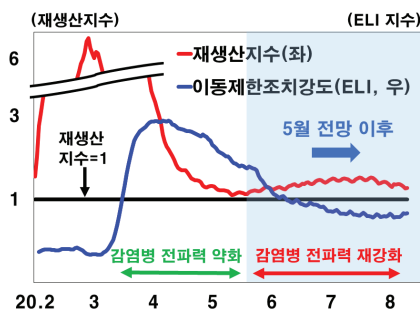
□ 국가별로 차별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확진자수가 증가세를 지속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 및 추적 역량 등의 방역조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의 조기 완화로 감염병 전파력(재생산지수로 측정)이 5월말 이후 최근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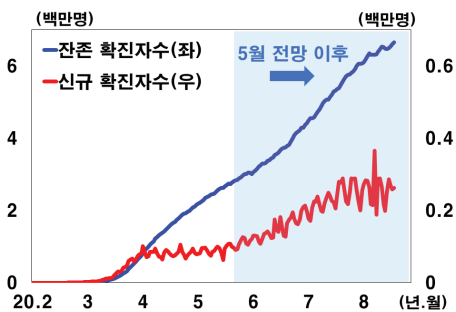
▪ 재생산지수\* 변화: 1.1(5월 중순) → 1.5(7월 평균) → 1.3(8월 중순)

\* 재생산지수가 1이면 잔존 확진자수가 현 수준에서 유지, 1 미만이면 잔존 확진자수가 감소, 1 초과면 잔존 확진자수가 증가

글로벌 재생산지수 및 ELI 변화<sup>1)</sup>



글로벌 확진자수 변화



주: 1) 이동제한조치는 Goldman Sachs의 Effective lockdown index(ELI)를 사용  
자료: Worldometer,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자체 시산

○ 5월말 기준 잔존 확진자수(감염병 전파 가능자)가 이미 3백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생산지수의 소폭 확대는 큰 폭의 신규 확진자수 증가를 초래\*

\* 감염자수가 작은 상태에서는 재생산지수(감염자 한 사람당 전파력)가 커도 신규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작으나, 이미 감염자수가 충분히 큰 상태에서는 재생산지수가 1을 조금만 초과해도 대규모 신규 감염을 촉발

### (3) 세계경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주요 고려사항)

-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의 코로나19 전개 시나리오 설정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 ①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확산과 이동제한 완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
    - 또한 경제성장률 시산 과정에서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강도보다 이동제한조치 강도에 더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을 고려\*
      - \* <별첨> ‘확진자수와 이동제한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가’ 참조
  - ② (이동제한조치 완화) 경제·사회적 부담, 피로감의 누적, 이동제한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이동제한조치가 현 수준에서 완만하게 완화될 것으로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
    -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이동제한조치가 기본 시나리오 대비 빠르게 완화되는 것으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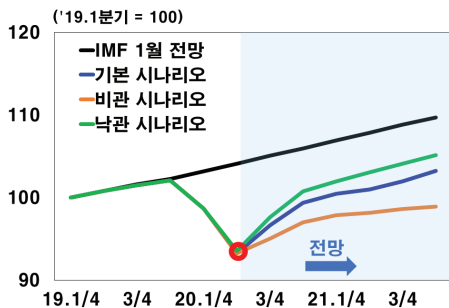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전개 상황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 말 이후에나 점차 진정
이동 제한 조치	경제활동 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점차 완화	경제활동 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완화	경제활동 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

##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기본 시나리오) 세계경제가 금년과 내년 각각 -4.1%와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년 하반기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낙관 시나리오) 세계경제가 금년과 내년 각각 -3.5%와 5.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년 상반기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비관 시나리오) 세계경제가 금년과 내년 각각 -5.2%와 2.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후년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별 세계 GDP 수준



자료: IMF WEO(20.4월), 자체 시산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2021 (%)	
	2020	2021
기본 시나리오	-4.1	4.7
낙관 시나리오	-3.5	5.9
비관 시나리오	-5.2	2.5

#### (4) 우리경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국내 시나리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내 시나리오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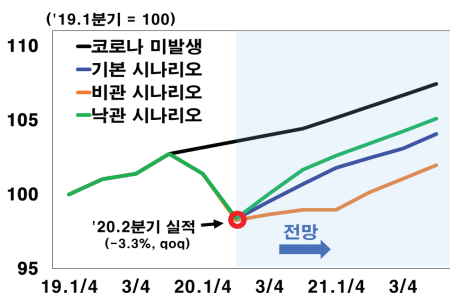
코로나19의 국내 전개양상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전개 상황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체	기본 시나리오보다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체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체

- (시나리오별 국내 성장률) 글로벌 및 국내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각각의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는 다음과 같이 도출

- (기본) 금년과 내년의 우리나라 성장률은 각각 -1.3%와 2.8%
- (낙관) 금년과 내년의 우리나라 성장률은 각각 -0.9%와 3.4%
- (비관) 금년과 내년의 우리나라 성장률은 각각 -2.2%와 1.2%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GDP 경로<sup>1)</sup>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글로벌 시나리오	경제성장률 (%)	
	2020	2021
기본 시나리오	-1.3	2.8
낙관 시나리오	-0.9	3.4
비관 시나리오	-2.2	1.2

주: 1) 코로나 미발생: 19.4/4분기까지의 GDP 실적치가 주어지고, 이후로 경제가 연평균 2.4% 성장한다는 가정

## <별 첨> 확진자수와 이동제한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가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신규 확진자수가 6~7월중에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를 반영하여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 중국경제의 강한 회복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

- 최근 경제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5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보다 강한 신호와 확신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
- 또한 이동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를 글로벌 성장 경로 조정사유로 반영한 반면, 확진자수 증가는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
  - 다만, 확진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이동제한조치가 재차 강화될 경우 향후 글로벌 경제가 재위축될 가능성을 경고

해외 주요 IB별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IB	발표시기 <sup>1)</sup>	(%, %p)			
		5월말	6월 (5월 대비)		7월 (5월 대비)
Goldman Sachs		-3.8	-3.4	(0.4 ↑)	-3.3 (0.5 ↑)
Barclays		-4.1	-3.6	(0.5 ↑)	-3.6 (0.5 ↑)
Fitch		-4.6	-4.6	—	-4.6 —
BoA		-4.4	-4.1	(0.3 ↑)	-4.2 (0.2 ↑)
Citi		-3.6	-3.5	(0.1 ↑)	-3.7 (0.1 ↓)
JP Morgan		-4.7	-4.0	(0.7 ↑)	-4.3 (0.4 ↑)
신규확진자수(일평균, 만명)		9.4	14.4	(5.0 ↑)	23.2 (8.8 ↑)

주: 1) 발표시기는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임. 예를 들어 6월 전망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발표된 전망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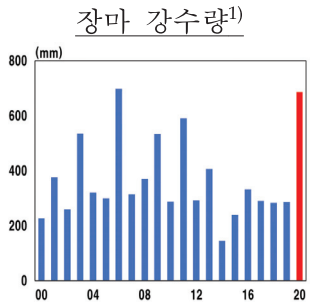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각 기관

## 2. 최근 장마·집중호우의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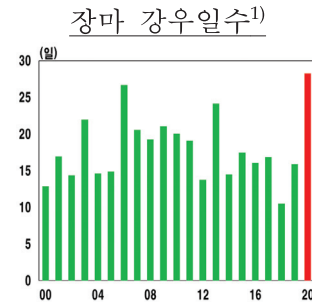
### (1) 최근 기상 여건

□ 금년 장마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54일(중부지방 기준, 잠정)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간(2013년, 49일)을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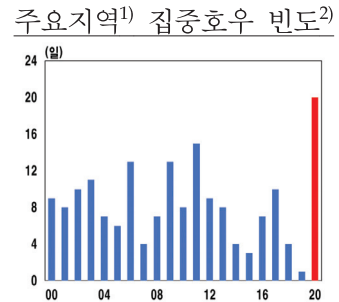
- 장마기간 중 강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강우일 또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특히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 손실이 확대



주: 1) 2020년은 잠정치  
자료: 기상청



주: 1) 2020년은 잠정치  
자료: 기상청



주: 1) 서울 등 5개 도시  
2) 7.1~8.16일 도시별 집중호우 발생일수 합계  
자료: 기상청, 자체 시산

□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7~8월중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는 예년 수준을 하회

7~8월 전국 기상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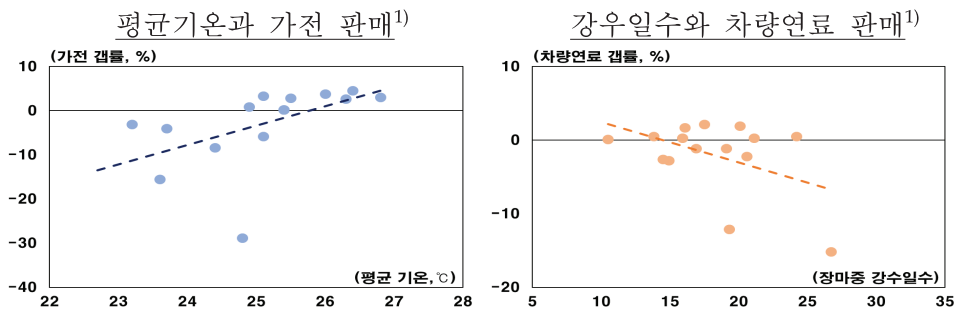
	강수량 <sup>2)</sup> (mm)	강우일수 <sup>3)</sup> (일)	최고기온 <sup>2)</sup> (°C)		평균기온 <sup>2)</sup> (°C)	폭염일수 <sup>3)</sup> (일)	일조시간 <sup>3)</sup>
			평균	최고치			
2006년 <sup>1)</sup>	647.2	21.5	28.3	34.6	24.2	1.7	64.2
2009년 <sup>1)</sup>	502.0	18.9	28.0	29.9	23.8	0.4	118.1
2011년 <sup>1)</sup>	650.5	19.4	29.2	33.2	25.4	2.8	114.2
2020년 <sup>1)</sup>	663.4	18.8	26.9	31.3	23.4	0.1	113.9
평균 <sup>4)</sup>	364.0	15.0	29.8	33.8	25.4	4.6	146.9

주: 1) 2000년 이후 7~8월중 강수량이 높았던 3개 연도와 비교  
2) 7.1~8.9일중 3) 7월중 4) 2000~2019년 평균  
자료: 기상청, 자체 시산

## (2)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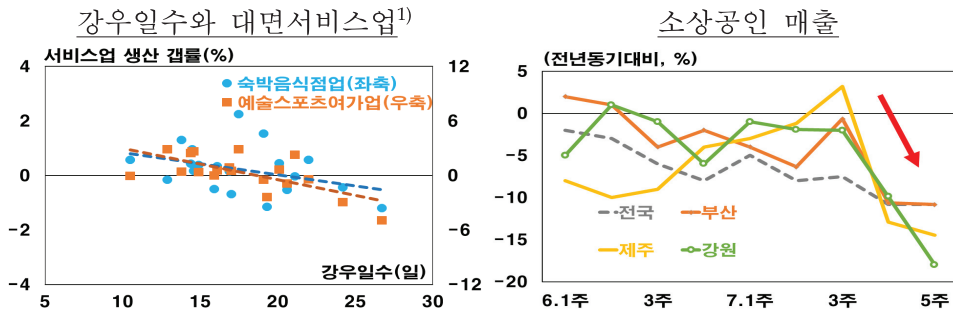
### ( 실물경제 )

- (재화소비) 강우일수 증가와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계절가전, 차량 연료 등의 매출이 줄어 3/4분기중 민간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전의 경우 장마기간중 기온이 낮게 유지되면서 냉방가전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차량연료도 여행 등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주: 1) 2000~19년중 7월 자료 기준, 추세 및 순환변동요인 제외  
 자료: 기상청, 통계청, 자체 추정

- (서비스업소비) 장마와 집중호우는 야외활동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소비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전망
  -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업 등에 대한 소비는 강우일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경향
  - 다만 이들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상당 정도 낮아진 점은 감소폭을 제한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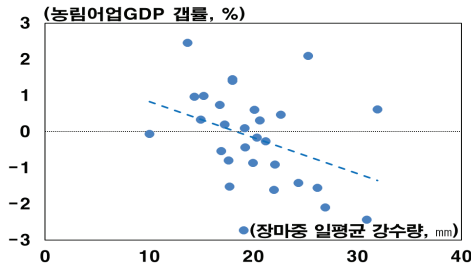
주: 1) 2000~19년중 7월 자료 기준, 추세 및 순환변동요인 제외  
 자료: 기상청, 통계청, 자체 추정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 (농림어업)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하반기 농림어업 생산이 감소하겠으나 성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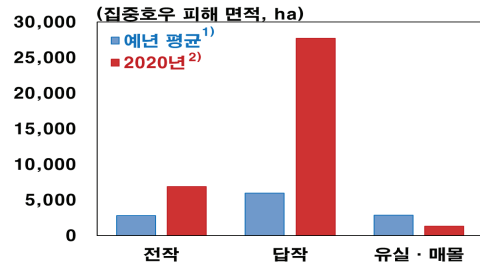
- 재배업, 축산업은 강수량이 특히 많았던 경기, 충청 및 전라도를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양식업도 해면 및 내수면 양식업에서 소규모 피해가 발생

강수량과 농림어업 생산<sup>1)</sup>



주: 1) 1997~2019년중 3/4분기 자료 기준, 추세 및 순환변동요인 제외  
 자료: 기상청, 한국은행, 자체 추정

농경지 피해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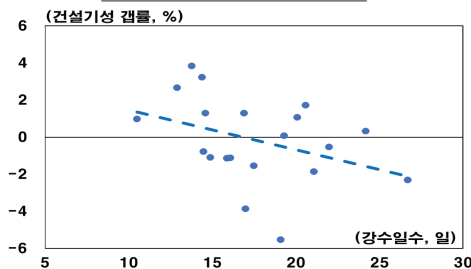


주: 1) 1998~2018년중 피해면적 평균  
 2) 8.15일 기준 잠정  
 자료: 국민재난안전포털, 농림축산식품부

□ (건설업) 장마 장기화는 7~8월중 건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이후 피해복구는 건설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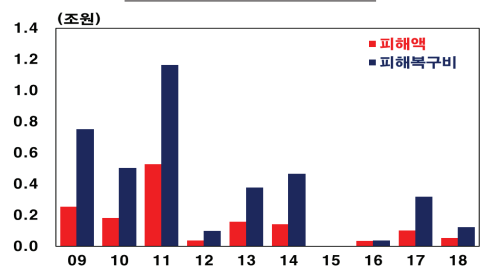
- 장마기간 중 강우일수와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건설기성(건물, 토목)이 줄어드는 경향
- 반면 예비비 등을 활용한 피해지역 복구활동은 4/4분기중 토목 등 건설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강우일수와 건설기성<sup>1)</sup>



주: 1) 2000~19년중 7월 자료 기준, 추세 및 순환변동요인 제외  
 자료: 기상청, 통계청, 자체 추정

호우피해 및 복구비



자료: 행정안전부

□ (기타산업) 제조업은 철강·조선업 등이 기상여건과 관련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기업은 기온 하락으로 전력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에너지 수입 감소로 영향은 제한적



( 물가 )

□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집중호우는 채소 및 과실의 공급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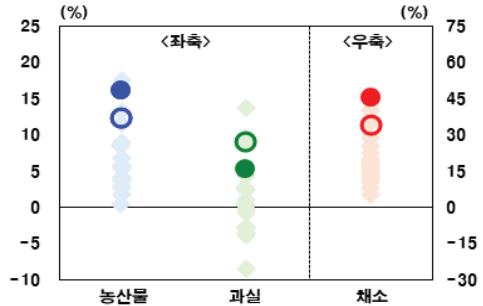
○ 농산물가격과 기상여건 간 관계를 보면, 강수량이 많을수록 채소, 과실 등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향

▪ 실제로 여름철 강수량이 많았던 2011년과 2006년의 경우\*, 7~8월중 채소, 과실 등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과거(2000~19년) 평균을 상회

\* 2003년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의 상당 부분(27%)이 8.15~31일중 집중됨에 따라 9월중 농산물가격 상승률(10.5%, 전월대비)이 과거 평균(5.4%)을 크게 상회

호우발생년도<sup>1)</sup>의 기상여건 및 농산물가격 7~8월중 농산물가격 누적상승률<sup>1)</sup>

		과거 평균 <sup>3)</sup>	2011	2006	2003
강수량(mm)		701	1054	913	991
강수일수(일)		38.5	48.5	41.7	46.5
상승률 <sup>2)</sup> (%)	농산물	7.1	16.1	12.3	5.8
	채소	22.8	45.2	33.9	11.9
	과실	1.9	5.2	9.0	9.4



주: 1) 2000~19년중 여름철(6~8월) 강수량 상위 3년  
 2) 7~8월중 누적 상승률  
 3) 2000~19년 평균  
 자료: 기상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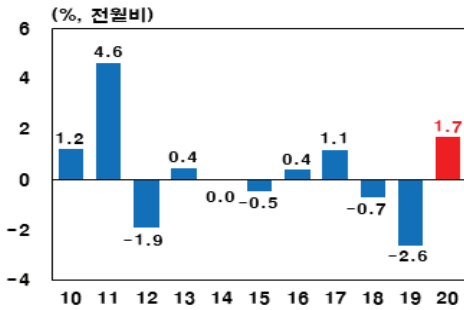
주: 1) ● 2011년, ○ 2006년,  
 ◇ 2000~19년 (2006년 및 2011년 제외)  
 자료: 통계청

□ 금년 7월중 농산물가격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채소 등의 공급 차질\*로 인해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1.7%, 전월대비)

\* 금년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일부 과실의 생육 부진도 출하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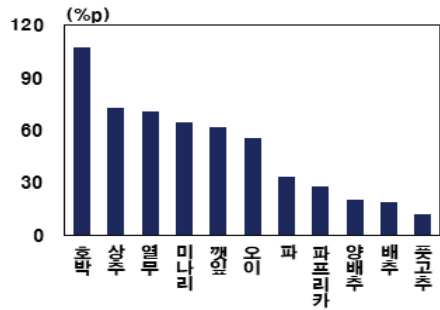
○ 8월 들어서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이 평년(2015~19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7월중 농산물가격 상승률



자료: 통계청

금년 8월중<sup>1)</sup> 농산물가격의 초과상승률<sup>2)</sup>



주: 1) 8.1~8.20일중 누적 상승률  
2) 2015~19년 상승률 평균과의 차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편 향후 기상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거나 병해충 등 2차 피해가 확산될 경우 추석수요와 맞물려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농산물가격이 9월까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잠재

### (3) 종합평가

- 금년중 장마·집중호우는 소비 및 농림어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3/4분기 GDP성장률을 소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는 가전, 차량연료 등에서, 서비스는 음식·숙박, 예술·스포츠·여가와 같은 야외활동 등에서 지출이 감소
  - 농림어업은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 피해로 하반기중 생산이 소폭 감소하고, 건설업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3/4분기 생산 감소가 예상
  - 제조업은 철강업 등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생산 감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다만 4/4분기 이후에는 장마 피해복구 및 지연된 경제활동의 재개가 생산 및 소비 회복세를 다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집중호우는 채소 및 과실의 공급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당분간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부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 문	부 서	담 당 자
작성총괄	조사국	이지호 김대용
<b>I. 대내외 여건 점검</b>		
1. 세계경제 2. 국제유가 3. 재정지출 4. 부동산시장 <주요 전망 전제치>	조사국	박병걸 오강현 김하은  오강현 안준영 박종욱 박동훈 조병수 주세준 김대용 이채현
<b>II. 거시경제 전망</b>		
1. 경제성장 (1) 민간소비 (2) 설비투자 (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 건설투자 (5) 상품수출 (6) GDP성장률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조사국	원지환 서정원 임상은 김상훈 김주완 김상훈 김주완 임준혁 고종석 이홍후 이운정 김대용 신동주 김형진 오삼일 박상순  박상우 이병록 노현주 남현우 강달현 이곤건 박 진
<b>III. 주요 현안점검</b>		
1. 코로나19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 최근 장마·집중호우의 경제적 영향	조사국	지정구 노경서 배의환  임준혁 이병록



## 경제전망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김 응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http://www.bok.or.kr)  
**발행일** 2020년 8월 27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